

제6기 주민참여부위원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김 원 영	성 별	
		남	
소 속	제6기 주민참여위원회 (보건복지)분과	나 이	
		만 45세	
주요경력 및 활동이력 (지역 내외 포함, 5년 이내)	기 간	주요경력 및 이력사항	
		영화 시나리오 작가	
	2017~	김작가씨작업소 대표	
	2016~2022	은평구자원봉사센터 사람책진로멘토봉사단 활동	
	2017~2021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이그나이트 대회 스토리텔링 작가	
	2017~2019	은평구 참여예산위원회 장애인분과 위원(2019 과 부위원장)	
	2019~2022	은평구 자원봉사자의 날 봉사자 사례발표 스토리텔링 작가	
부위원장 지원동기	참여예산위원회 3기 보궐로 시작해서 4기까지 장애인분과에서 활동하면서 주민의 참여가 지역사회와 이웃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이후 2년여를 쉬고 작년 6기 보궐로 들어와 보건복지분과에 지원해서 활동하면서 예전보다 발전된 주민참여위원회의 위상과 활동을 몸소 느꼈지만 아직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의 전문 분야인 스토리텔링이 참여예산사업에 접목되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참여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장 등 선출 관련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소속, 나이, 성별, 주요경력, 지원동기,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위원장 등 신청 및 선출 완료 시까지
- 개인정보 수집출처 : 은평구청 협치담당관(☎02-351-8499)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위원장 등 후보자 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

위와 같이 은평구 제6기 주민참여부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3년 1월 19일

신청인 : 김 원 영(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

부위원장
주요 활동
안내

주민참여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고) 위원장 주요 활동 안내

1.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 업무협의(수시)
2.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활동
 - 주민참여위원회 운영협의회 위원 활동(분기 1회 이상)
 - 주민참여위원회 구·동 협의회 운영(분기 1회 이상)
 - 참여예산 주민총회 계획 및 운영
 - 은평구 본예산편성 집중분과회의, 조정협의회, 민관협의회 운영 등
3. 서울시 참여예산사업 컨설팅 및 사업발굴 지원활동 등
4. 참여예산 거버넌스 활동(자치분권박람회, 포럼, 토론회, 워크숍 등 참석)
5. 주민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 활동(개인활동, 월 1회 이상)
6. 은평구 협치회의 위원활동

확인 ☒

자기소개
및
선임 후 활동계획

저는 2003년부터 은평구 응암동과 녹번동에 거주하며 영화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응암동 동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를 다룬 영화 '응암동'을 각본, 연출하기도 했으며 작년 참여예산 주민총회에서는 투표에 올라온 사업을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은평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로 관내 초,중,고에서 인문학과 영화 시나리오 작가라는 직업을 주제로 멘토 강연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미력하나마 지역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작가라는 직업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익숙한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해내는 능력이 중요한 직업입니다. 이는 익숙한 우리 이웃, 마을, 지역문제를 찾아내서 해결하고 바꾸고자 고민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본질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참여위원회에는 젊은 층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아직 젊은 40대 중반의 나이로 세대를 아우르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연륜 있는 위원님들과 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대중적이면서도 쉽고 때론, 젊은 언어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저의 작가라는 직업적 경험을 접목시키고 싶습니다.

2023년 1월 19일

작성자 : 김 원 영 (서명 또는 인)

